

2015 the International Architecture Award
(The Chicago Athenaeum)

2014 한국건축가협회상 올해의 베스트7

2014 부산다운건축상 금상

삶과 건축의 어울림

수국마을

우대성
조성기
김형중

건축사사무소 오퍼스 공동대표

개요

위치	부산광역시 서구 천해남로 7
용도	노유자시설
대지면적	21,630.00m ²
건축면적	1,056.72m ²
연면적	2,016.20m ²
규모	A, B동 - 지상 2층/ C, D동 - 지상 3층
설계	건축사사무소 오퍼스
설계담당	박유선, 양군수, 김종도, 윤종원, 이상대, 남성진, 황승호, 김희연
시공	남흥건설주식회사
인테리어	모노숨 디자인
건축주	재단법인 마리아수녀회



상 이전 보육시설의 모습
하 수국마을의 붉은 벽돌과 박공지붕은 평범한 가정집을 연상하게 한다.



좌 큰 건물 대신 작은 집이 모인
 마을을 만들었다.

우 수국마을은
 주변 동네에 어울리도록
 작고 낮다.



© 00 00 00



© 00 00 00



여덟 채의 집은
독립적이지만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모과나무집





‘어울림’이란 건축에서
지극히 당연하고
보편적 가치이지만
실제 적용은
어렵고 고되다.

모든 현실의 상황과
문제를 고려하여
프로젝트를 끝까지
이끌 수 있어야
실재하는 건축이
만들어진다.
더 중요한 것은
짓고 난 이후다.

생각한 대로
잘 쓰이고 작동되어야
그 가치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 후에야
그 건축에
‘어울림’이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 상 수국마을 중심에 있는 커뮤니티
공간 사랑채
- 하 아래 마당은 아이들의 편안한 쉼터가 된다.



© 2015
R&D



© 2015
R&D



© 2015
R&D

- 상 거실은 휴식과 이야기가 있는 소통의 공간이다.
- 중 청소, 시장보기,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모든 일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도록 했다.
- 하 중1부터 고3까지 다양한 12명의 아이들이 스스로
역할을 나누고 소통한다.

실재하는 삶을 담은 건축.
 복잡하고 고매한
 이론이 있음에도
 결과로 이루어진
 건축이 실재다.
 거기에 이론과 절절한
 현실과 실제상황이 녹아
 건축이 그것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철저한 현실성을
 바탕으로 실재하는
 삶을 다루는 건축가이다.



© 2014

이제 아이들은 '우리 집'에서 '스스로' 하는 것에 익숙해졌다.

수국마을을 열고 참 많은 사람이 다녀갔다. 부산은 물론 서울·경기도·전라도·제주도 등 전국에서 그리고 호주·인도네시아·필리핀·온두라스 등 외국에서 온 손님들도 있었다. 이들은 왜 이리 먼 곳까지 찾아왔을까? 건축을 보기 위해 방문한 이들은 그 안에서 아이들의 변화된 삶을 느꼈다고 말한다.

‘어울림’이란 건축에서 지극히 당연하고 보편적 가치이지만 실제 적용은 어렵고 고되다. 건축을 진짜로 해 본 사람은 이 단어의 실현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안다. 땅, 상황, 맥락, 역사, 법규, 돈, 시간, 간섭, 책임, 안전, 기술, 민원까지. 이 모든 현실의 상황과 문제를 고려하여 프로젝트를 끝까지 이끌 수 있어야 실재하는 건축이 만들어진 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짓고 난 이후다. 생각한 대로 잘 쓰이고 작동되어야 그 가치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 후에야 그 건축에 ‘어울림’이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 집 좀 어떻게 해야 하는데...

어느 날 수녀님으로부터 톡 던져진 미션이다. 건축주의 유일한 요구이기도 하다. 그렇게 수국마을의 꿈은 시작되었다. 그곳은 낭만의 현장도 아니고, 예술의 현장은 더욱 아니다. 100명의 엄마수녀들이 700명의 아이들과 함께 사는 삶의 현장이다. 집을 ‘어떻게’ 해야 하는 일이다. 건축과 건축가의 고민도 이 거대한 현실 속에 톡 하고 던져진다.

오래전 건축가의 역할은 인간의 삶과 집, 도시 전체를 다루는 것이었다. 집 지을 자리를 찾고, 집의 안대를 살피 방향을 잡고, 햇살과 바람길을 보며 집의 규모를 정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건축주의 요구에 맞추는 일’만 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 이상의 일은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다. 보상도, 보람도,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구체적인 요구가 없으면 정해 달라고 건축주에게 끊임없이 요구한다. 그것은 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며, 내 책임 밖의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집이 구상되고 지어지고 쓰이는 과정은 비슷하다. 우리는 그것을 ‘건축복잡성 불변의 법칙’으로 생각한다. 건축의 규모와 정비례하지 않는다. 복잡한 건축업무의 총량을 누가 맡을 것인지가 업무 범위, 작업방식, 책임과 할 일의 차이를 가져온다. 날이 갈수록 직업이 분업화되면서 건축가의 역할은 줄어들고 있다. 건축가가 프로젝트를 접할 때 집을 지을 땅은 대부분 정해져 있다. 건축주는 건축가에게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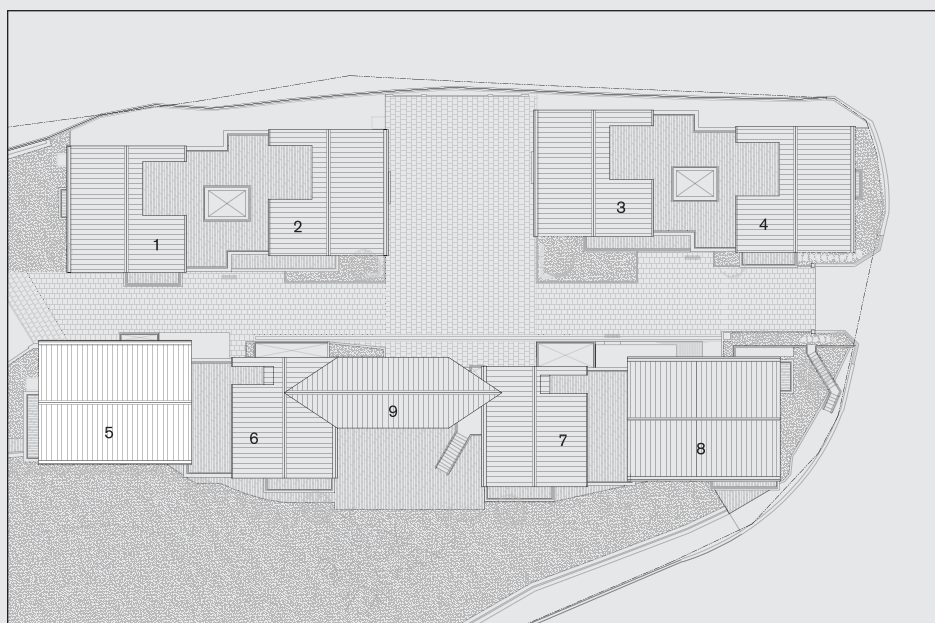


이전 교육시설의 모습



지형배치도

Site 0 25 50 75 100m



배치도

- 1 persimmon tree
- 2 pomegranate tree
- 3 fig tree
- 4 Japanese apricot tree
- 5 apple tree
- 6 plum tree
- 7 jujube tree
- 8 quince tree
- 9 reception room

Site Plan 0 5 10m

물을 최대한 크게 뿜아 달라고 한다. 집의 쓰임은 프로그램을 하는 이 (또는 상품기획자, 시행사)가 정한다.

어쩌다 보니 건축가는 구체적인 지침(또는 법적 한계)을 건축도면으로 그려주고 인 허가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었다. 심지어 아파트는 외관만 별도의 디자이너가 진행하는 기이한 현상도 일반화되었다. 심의와 허가과정에서 건축가는 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하는 ‘을’이기 일쑤다. 시공이 시작되면 감시자의 역할이 중요하며 설계자가 아닌 사람이 감리자가 된다. 이제 법으로 설계자가 감리를 못하도록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건축주를 대신해서 지인들이 감독자로서 온갖 훈수와 간섭을 하기도 한다. 실내공간에 대해 인테리어 디자인을 따로 진행하는 것은 상식이 되었다. 집 짓는 과정에서 건축가의 역할과 자리는 중심에서 점점 멀어져 간다. 프로젝트 전체를 총괄하고 조율하고 방향을 정하는 고유의 자리는 사라져 가고 있다.

건축주의 명쾌한 요청 덕에 수국마을 프로젝트에서는 그 중심에 건축가가 있어야 했다. 진행에서 건축가 업무의 한계나 경계도 없었다. 모든 것을 건축가 스스로 찾고 또 결정해야 한다. 그것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었다.

아이들의 작은 방과 엄마들을 위하여

고민의 출발점에서 있을 무렵 소년의 집 합주부 이야기를 담은 『너같이 좋은 선물』이라는 책을 만났다. ‘좀 어떻게 해야 할 집’에 사는 아이들과 그 삶의 단면을 엄마수녀의 시선으로 담은 책이었다. ‘대성이의 작은 방’이야기가 눈에 들어왔다. 엄마수녀는 2006년 8월 인천공단에서 일하던 대성이가 휴일근무 중에 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는다. 장례를 치르고 아이의 집을 정리하기 위해 죽은 아이의 방으로 간다. 내가 키웠던 아이에게 이런 면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방은 아주 정갈하다.

“21살짜리 사내애가 혼자 사는 방. 1,700만 원의 전세, 다세대 주택 2층 우측 방. 작은 노트 첫 장에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그림에 그려진 그 자리에 침대가 있었고 냉장고가 있었고 책상과 옷장이 있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것도 온전히 자기 힘으로 방을 마련하느라 아이는 생애 마지막 2년을 그렇게 보낸 것이다. 한 아이의 꿈과도 같은 그 방은 그러나 우린 아무도 지켜주지 못했다. 그날 이후, 나는 다른 아이의 마음속에도 그런 작은 방이 하나씩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너같이 좋은 선물』 중에서

© 1998 R&B



상 수국마을은 주변 동네에 어울리도록 작고 낮다.

하 붉은 벽돌과 박공지붕은 평범한 가정집을 연상하게 한다.



© 1998



상 큰 건물 대신 작은 집이 모인 마을을 만들었다.

하 수국마을 중심에 있는 커뮤니티 공간 사랑채

가슴이 먹먹해졌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며, 이곳에 사는 그리고 살아갈 아이들의 현실과 닿아 있었다. 이곳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그대로 삶의 현장에 뛰어들어 홀로 서야 한다. 자립! 맨몸으로. 무엇으로 이들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건축은 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가능하기는 한가?

50년간 아이를 키워 온 수녀들은 어느새 할머니가 되어 가고 있다. 그래도 관리자가 아닌 엄마여야 한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 수녀회의 정신이 그렇고 직접 키워 보니 그렇단다. 직접 해서 먹고 돌보고 그늘이 되어야 엄마다. 그렇게 1만 2,000명의 아이들을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길렀다. 엄마수녀는 정신은 맑지만 예전같이 온몸으로 아이들을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과의 소통도 만만치 않다.

이곳은 한때 2,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살았다. 시설의 창설자인 알로이시오 신부는 ‘가난한 자에 대한 봉사’를 강조하였다. 가난한 이가 최고의 대우를 받도록 하는 것을 철칙으로 하기도 하였다. 지을 당시 엘리베이터까지 갖춘 최신택 건물을 만들었다. 많은 아이들을 돌봐야 했기에 큰 방에 20~30명이 함께 살았다. 3층 침대에서 잠자는 일, 공부, 식사, TV 보는 것 모두 한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아동복지법」이 바뀌었다. 양육 아동의 인권을 위해 한 공간에 3명 이하로 살아야 한다. 3년 이내에 시설을 개선하지 않으면 양육시설에 대해 징계조치가 내려진다. 비용은 각 시설에서 알아서 해야 한다. 집은 이미 충분히 크지만, 3명 이하로 살게 만들 방법이 간단치 않았다. 50년간 살아온 방법이 한순간에 변화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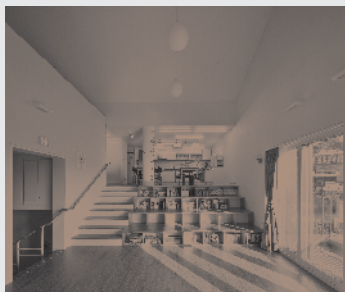
1996년 12월 12일, 한국은 OECD에 가입했다. 자랑할 만한 일이지만, 이로 인하여 시설을 운영하는 마리아수녀회는 복잡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모금된 후원금을 한국에 사용하는 데 제한을 받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시설은 그동안 이 후원금으로 운영되어 왔다. 2010년이 지나면서는 후원금 사용 제한이 심각한 현실이 되었다. 집을 짓기 위해 은퇴 수녀들의 퇴직금을 털기로 했다. 비용의 한계는 모든 건물을 지을 때 고려해야 할 요인이 되지만 이곳에서는 더욱 중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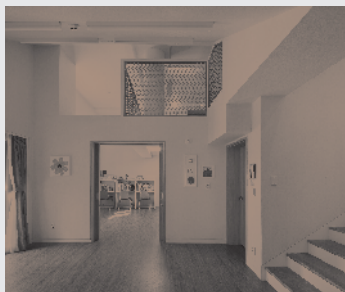
평면도

- | | | | |
|---|--------------|----|----------------|
| 1 | entrance | 8 | prayer |
| 2 | living room | 9 | reception room |
| 3 | kitchen | 10 | roof terrace |
| 4 | utility room | 11 | lower yard |
| 5 | storage | 12 | play courtyard |
| 6 | room | | |
| 7 | loft | | |

Plan-3
0 5 10m



© 1998



상 거실은 휴식과 이야기가 있는 소통의 공간이다.

중 위층에 식당 주방을 둔다. 조금 불편하지만 많이 움직이고 자주 볼수록 좋다.

하 청소, 시장보기,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모든 일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집의 구조가 아니라 삶의 방식

이 모든 장면이 ‘좀 어떻게’해야 할 집이 맞닥뜨린 현실이었다. 어느 하나 녹록한 것이 없었다. 수녀회로부터 조금 더 구체적인 요구가 보태졌다. ‘100명 정도 살 거예요.’

크리스마스이브 성탄전야 미사 전에 쏟아지는 졸음을 견디며 『내 마음의 건축2』를 읽고 있었다. 저자인 나카무라 요시후미가 그린 한 장의 스케치-찰스 무어의 ‘시 랜치 콘도(Sea Ranch Condominium)’의 모태가 된 몬테프리오(Montefrio) 마을 조감도-를 본 순간 번쩍 머리에 번개가 쳤다. ‘아! 이거다.’

큰 집이 아니라 단독주택으로 구성된 마을. 8채의 주택에 12명이 살면 일주 100명이 살 수 있는 마을이 된다. 머릿속에 담아 온 땅의 크기에도 들어맞았다. 판교에서 지었던 80평 주택이 겹쳐졌다. 한 채에 4억, 5억 원의 비용이 들었다. 8채를 짓는 데 36억 원이면 된다.

‘이러면 삶의 시스템도 해결되겠구나. 양육하는 엄마수녀님이 길러주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자립하는 곳이 되도록 하자.’

물꼬가 트인 생각을 손이 따라가기 힘들었다. 아이디어를 바쁘게 쓰고 그렸다. 길과 마당, 경사지 팽나무. 건축과 삶의 시스템에 대한 제안이 한꺼번에 보였다. 알로이시오 신부님이 하늘에서 준 성탄 선물 같았다.

“수녀님, 완벽히 독립된 주택과 마을로 만들면 어떨까 합니다. 집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생활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 12명이 완전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겁니다. 장 보고 밥하고 빨래하고 관리비 내고 물품도 사고... 돈 버는 일 말고는 모두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가끔 생활비가 모자라고 찌들리기도 하겠지만, 엄마수녀님과 도우미는 관리·지도·멘토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피동에서 능동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고(엄마가 나이 들었으니 아이들이 해야죠^^). 12명이 사는 집 8채가 만든 조그만 마을이 되는 겁니다.”

수녀님에게 메일을 보내고 내용을 설명하였다. 이후 100명의 엄마수녀 모두를 설득하고 함께 지혜를 모았다. 아이들에게도 보여주고 변화를 설명하였다.

“너희가 살 집이다. 시장 보고, 빨래하고, 밥하고, 공과금 내고, 규칙을 정하고, 생활비 한도 안에서. 돈 버는 것만 빼고 모두 스스로 해야 한다.”

집의 물리적 환경만 준비되어서 될 일이 아니었다. 삶의 방식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일이었다. 엄마도, 아이도 같이 변화해야 했다. 건축과 삶의 패턴 변화를 함께 준비했다. 건축가, 수녀님, 아동 양육자 모두가 같이 움직였다.

건축의 디테일도 이러한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수도와 전기 계량은 현관 잘 보이는 곳에 뒀다. 보면 스스로 아끼게 되기 때문이다. 위층에 식당 주방을 뒀다. 쓰기에 조금 불편하다. 어쩔 수 없이 많이 움직여야 한다. 의도된 불편이었다. 식당과 현관에는 큰 게시판을 설치했다. 12명의 아이들 스스로 역할을 나누고 소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12명의 구성원은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년이 다르다 보니 보이지 않는 위계질서가 팽팽했다. 청소·시장보기·빨래·식사준비·설거지 등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자신이 하지 않으면 같이 사는 모두가 불편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싶었다. 엄마수녀의 역할은 조율뿐이다.

거실의 한가운데 있던 TV를 없앴다. 대신 빔 프로젝터와 노트북을 뒀다. 무언가 하려면 준비하고 찾고 서로에게 이야기하고 동의할 구해야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

집 마당에 과일나무 한 그루씩을 심었다. 감, 석류, 포도, 매실, 사과, 자두, 대추, 모과. 열매가 달리는 과일나무를 골랐다. 그대로 집 이름이 되었다. ‘수국(樹國)마을’. 나무 열매 색깔은 집의 컬러 코드로 사용하였다. 나무는 8개의 집을 구분하는 기호이자 아이들이 속한 집의 상징이 된다. 나무는 아이들과 함께 자라고,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삶의 단계를 하나하나 달성하듯 ‘열매’를 맺을 것이다.

삶에 어울리는 건축, 건축에 어울리는 삶

이사한 첫 날, 핸드폰으로 몇 장의 사진이 왔다. 마을의 책임 수녀인 ‘이장’ 수녀님이 마당에서 족구를 하는 아이들, 칠판 가득한 낙서, 밥 준비하며 웃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담아 보낸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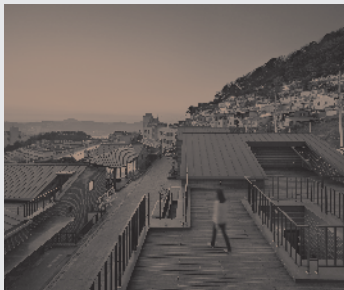
‘안심이다. 집이 잘 쓰이는구나.’

자립의 삶을 6개월 살아본 후 평가하는 자리에 참석하였다. 엄마수녀와 아이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다. 집마다 준비한 내용을 아이들이 발표하였다. 관리자들과 설문조사도 함께 담았다. 아이들은 빔 프로젝터 사용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 아이들이 집에서 살면서 느낀 좋은 점은 자립에 대해 생각하게 된 것, 스스로 선택권이 생긴 것

© 2015
R&B



중1부터 고3까지 다양한
12명의 아이들이
스스로 역할을 나누고 소통한다.



© 2014
R&B



상 여덟 채의 집은 독립적이지만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하 이제 아이들은 '우리 집'에서 '스스로' 하는 것에 익숙해졌다.

(특히 식사 메뉴), 나만의 공간이 생긴 것이라고 했다. 역시 삶의 내용이었다. 졸업생 대성이가 그토록 원하던 자기만의 공간에 조금은 가까워진 것 같았다.

엄마수녀들의 평가도 이어졌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찬밥 남은 것을 아이들이 잘 챙기더라고요”, “받는 것을 당연시하던 마음에 감사가 생기게 되었어요”, “다른 집 직원들과 사람을 초대해서 집들이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변화된 삶의 단면을 보여주는 내용이었다.

아이들의 자세가 바뀌고 있었다. 이날 발표에서 모과나무집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았다. 아이들이 작년 크리스마스에 주변 동네 독거노인(부산의 암남동에는 달동네 같은 곳도 아직도 많이 있다)을 찾아가 쌀을 전달하는 사진을 보여주었다. 자기들의 생활비를 아껴서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글을 쓰는 지금도 눈물이 난다.

실재하는 삶을 담은 건축. 복잡하고 고매한 이론이 있음에도 결과로 이루어진 건축이 실재다. 거기에 이론과 절절한 현실과 실재상황이 녹아 건축이 그것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철저한 현실성을 바탕으로 실재하는 삶을 다루는 건축가이다. 이 프로젝트에서 건축가의 역할은 특정 부분에 한정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몸을 폭담가 그들이 되어 고민하고 함께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국마을을 만든 것이 아니라 마리아수녀회(창설자 알로이시오 신부가) 건축가의 손을 빌려 추구하는 삶을 형태로 빚어낸 것일지도 모른다. 수국마을은 그 삶이 닮아야 하는 건축, 삶과 건축의 어울림을 찾아낸 과정이자 결과다.

얼마 전 수국마을에 들렀을 때였다. 감나무집 엄마수녀님이 “소장님, 시간 좀 있으세요? 감나무에 감이 4개 열렸는데, 하나 드리려고요” 하셨다. 감나무에 감이 열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내게는 놀랍고도 의미 있는 일이었다. 수국마을에 심은 나무에서 첫 열매가 열린 것이었기 때문이다. 무언가 구체적인 결실을 본 느낌으로, 그 작지만 알찬 열매가 놀랍도록 반가웠다.

단면도

- 1 entrance
- 2 living room
- 3 kitchen
- 4 utility room
- 5 storage
- 6 room
- 7 loft
- 8 prayer
- 9 reception room
- 10 roof terrace
- 11 lower yard
- 12 play courtyard

